

어학연수생 주간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APU 말레이시아	날짜	2024. 1. 21
학과	간호학과	이름	홍보람
학번	2248027	이메일주소	ckl3032@naver.com

학교 생활

1. 학업 관련

pt 발표가 있었다. 주제 3 개중에 고르는 것이었는데 내가 고른것은 “게임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었다. 데이트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비해 해결책을 생각하기 쉽다는 생각때문인지 친구들과 주제가 많이 겹쳤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발표했다. 교수님 피드백은 좋게 받았는데 손바닥 크기로 볼수있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손에 종이가 있다보니 작더라도 습관적으로 보게되었다. 6 분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쓰려면 천천히 나의 말로 발표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으로 sonnet 를 읽고 고전을 읽는 다른 표현들을 배우는 것도 신선했다.

2. 생활 관련

이번주에는 학교에서 학술제가 있었다. 여기가 과학기술 대학교여서 우리반 친구들도 본과에 들어가기위해 준비하는 어학코스였다. 무슨전공 할거냐고 했더니 대부분이 컴퓨터 보안 전공을 할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교환학생들이 여기 많이왔고 학술제때 중국인 친구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뇌과학 전공하고싶은 대학생이어서 학술제 포스터가 익숙하길래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열정적인 친구였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게 자랑스러웠다

3. 기타

체험활동은 sunway lagoon 을 다녀왔다. 워터파크 동물원 놀이동산이 동시에 있는 엄청 큰곳이었는데 나는 놀지는 않았고 포토 쌤들이랑 학생들 어떻게 노는지 보고 옆에 호텔 내에 있는 상가를 갔는데 와 무슨 내부 장식을 중국 성을 하나 만들어놓은것 같았다, 이나라는 많은 문화가 겹쳐있는 곳이 정말 매력적이다 어딜가도 중국어를 쓸수있고 또 매장에 직원들은 말레이 현지인 그리고 인도계열 선생님들 그리고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서 남아있는 유럽문화, 그리고 이슬람문화 모든것들이 신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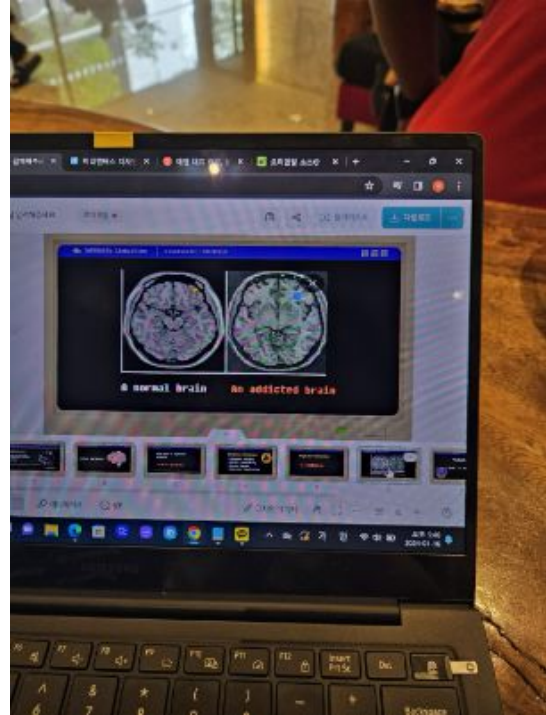
향후 계획

세상과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것같다 이번주에 신성록 교수님과 말씀나누면서 길게 삶을 보고 어떻게 내가 도전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것같다. 2 주차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에세이쓰고 듣기평가하고 이런것들이 한학기를 농축해서 살고있는 느낌이다. 계속되는 도전에 지칠법도 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교수님이 2 주만에 계속 시험보면 다들 반항? 할텐데 하하 잘들 해내는것보니 레벨마다 참 열심히하는 친구들도 부천대 친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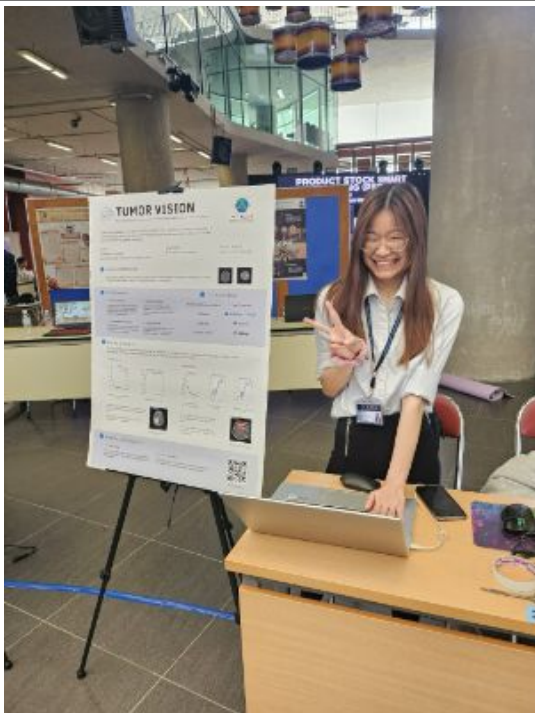
사진자료



첫 PT “How can video games affect their personal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s on the brain 의 위주로 설명함.



학술제 보다가 만난 중국친구 뇌과학 관련해서 준비했길래 이야기나눔.



교수님 말레이 전통의상 입고오신날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정성껏 해주신다.



친구의 발표시간 대답해서 초콜릿 받았음



sunway lagoon 동물원



학식을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배탈
안나려고 여기 닭죽이랑 찐미숙을 먹음
친구들도 나먹는거 보고 이쪽 에 와서
돈까스먹음 (이슬람 국가라 돼지고기가 거의
없어서 학식 닭만먹던 친구들 놀람ㅋ)



sunway lagoon 호텔안에 쇼핑몰 내부를
이렇게 꾸며 놓았다. 중국 명절을 맞이해서
확실히 중국인이 큰손은 큰손인가보다.
어딜가도 중국어로 다 통한다.

